

# 2022년도 소방직 한국사 해설

## [정답표]

1	2	3	4	5
②	②	③	②	①
6	7	8	9	10
②	③	②	④	②
11	12	13	14	15
①	③	③	④	③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③	①

### 오답 해설>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국가는 삼한이다.
- ③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린 곳은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④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한 국가는 고조선이다.

## 1 - 초기 국가, 고구려

### 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는 모두 다섯 부족이 있으니,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다.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뒤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이 설치한 관계(官階)에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대가, 주부, 우태,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 (중략) [가]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禊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

- 『후한서』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 ④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 정답> ②

'(가)에는 모두 다섯 부족이 있으니,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다.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뒤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들이 설치한 관계(官階)에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대가, 주부, 우태,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 (중략) (가)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禊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초기 국가, 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0월의 제사는 곧 추수 감사제이자 제천 행사인 10월 동맹).

초기 국가,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는 일종의 데릴사위제(예서제라고도 함)이다.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데 이곳이 곧 서옥, 사위의 집이다. 사위[신랑, 남편]가 이곳에 머무르다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신부]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 2 - 22담로 왕족 파견(백제 무령왕)

2.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군대가 군사를 네 방향으로 나누어 협공하였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 『삼국사기』

(나)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 ①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백제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③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하였다.

정답> ②

(가)에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군대가 군사를 네 방향으로 나누어 협공하였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련은 고구려의 제20대 왕인 장수왕(재위 413-491)으로, 주어진 자료는 장수왕이 재위 63년인 475년에 백제 한성을 함락시킨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이때 백제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 전사].

(나)에는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관산성(지금의 충북 옥천)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554).

백제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23년인 562년의 일이다.
- ③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
- ④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한 것은 근초고왕 24년인 369년의 일이다(영토가 전라도 남해안에 이름).

## 3 - 독서삼품과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여러 학생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삼았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써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

- 『삼국사기』

- ① 현량과
- ② 골품 제도
- ③ 독서삼품과
- ④ 상수리 제도

정답> ③

'여러 학생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써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에 도입한 독서삼품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현량과는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이다. 정암 조광조(1482~1519)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1519, 중종 14).
- ② 골품 제도는 (통일)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제도이다. 개인의 혈통의 높고 낮음에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우마차(牛馬車)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졌다.
- ④ 상수리 제도란 (통일) 신라 시대에 지방 세력의 자제를 중앙에 (일종의 볼모로) 머물게 함으로써 지방 세력을 통제하던 방식을 말한다. 고려 시대 기인 제도의 전신이다.

## 4 - 연개소문의 권력 장악과 안시성 전투

4.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 고구려가 당 태종이 이끄는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가)	(나)	(다)	(라)
관산성 전투	살수 대첩	백제 멸망	기벌포 해전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②

위의 자료에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연개소문(?~665)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642년(영류왕 25/보장왕 원년)의 일이다. 아래의 자료에는 '고구려가 당 태종이 이끄는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고구려 보장왕 4년인 645년의 일이다.

이상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살수 대첩이 일어난 해(612, 고구려 영양왕 23)와 백제가 멸망한 해(660, 백제 의자왕 20)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554년이고, 기벌포 해전은 676년, 발해 건국은 668년의 일이다.

## 5 - 전북 익산의 역사적 사실

5. 다음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안승의 보덕국 건국
- ② 매소성 전투의 전개
- ③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
- ④ 원종과 애노의 난 발생

정답> ①

왼쪽의 문화유산은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백제 무왕 40). 그리고 오른쪽의 문화유산은 익산 왕궁리 오층 석탑(고려 초기로 추정).

(고구려 보장왕의 외손자이자 왕족인) 안승(?~?)이 (고구려 유민의 나라인) 보덕국을 건국한 곳은 금마저, 지금의 전북 익산이다(674, 신라 문무왕 14)(674년에서 683년까지 지속).

오답 해설>

② 매소성 전투가 전개된 '매소성'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이다(675.9). 매소성은 한탄강 부근에 있는 천험의 요새로 매초성이라고도 부른다.

③ 진흥왕의 순수비가 건립된 곳은 서울 북한산(북한산비), 경남 창녕(창녕비), 함남 함주(황초령비), 함남 이원(마운령비), 이렇게 4군데이다.

④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한 곳은 (지금의 경북 상주인) 사벌주이다(889, 진성 여왕 3).

## 6 - 후백제 견훤의 행적

### 6. 밑줄 친 '왕'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 땅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중략)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하물며 듣자니 고려의 왕공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의 계시인 듯합니다. 반드시 삼한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 『삼국사기』

- ①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고려에 귀순하였다.
- ③ 철원에 수도를 정하였다.
- ④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②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 땅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하물며 듣자니 고려의 왕공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의 계시인 듯합니다. 반드시 삼한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 '하루아침에 집안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 땅을 잃고 투항', '반역한 아들', '고려의 왕공', '삼한의 주인'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왕'은 후백제의 견훤(867~93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견훤은 말아들인 신검이 양검, 용검 등과 모의하여 935년 음력 3월에 정변을 일으키고 자신을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 가두었지만 3달 뒤에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였다(935).

오답 해설>

- ① 발해를 건국한 이는 대조영(?~719, 발해 고왕)이다(698).
- ③ 철원에 수도를 정한 이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이다(905). / ④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다(918~933). 즉위 시에 사용하였다.

## 7 - 고려 전기 문벌의 형성

### 7.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라에 벼슬하는 자는 바로 귀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며,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중략)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勳戚)을 임명한다.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하였는데,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아 비로 삼았다.

- 『선화봉사고려도경』

• 최사추는 문헌공 최충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글을 잘하였다.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중략) 최사추의 아들은 최원과 최진이다. 최원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서우복야가 되었고, 최진은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다. 이자겸, 문공미, 유인저가 모두 최사추의 사위이니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에 비길 바가 없었다.

- 『고려사』

- ① 과거의 폐단
- ② 훈척의 소멸
- ③ 문벌의 형성
- ④ 최씨정권의 형성

정답> ③

위의 자료에 '나라에 벼슬하는 자는 바로 귀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며,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중략)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勳戚)을 임명한다.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하였는데,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아 비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하였다'는 부분에서 인주 이씨 가문이 외척 가문으로 발전하여 문벌 귀족화 되어감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최사추는 문헌공 최충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글을 잘하였다.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중략) 최사추의 아들은 최원과 최진이다. 최원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서우복야가 되었고, 최진은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다. 이자겸, 문공미, 유인저가 모두 최사추의 사위이니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에 비길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역시 최충의 자손들이 과거와 혼인을 통해 문벌 귀족화되어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의 두 자료는 고려 전기에 나타났던 문벌 귀족의 형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과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 ② 훈척(勳戚)이란 나라에 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을 가리킨다.
- ④ 최씨 정권이 형성된 것은 최충헌(1149~1219)이 집권한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최충헌의 증손자 최의가 피살된 1258년까지 최씨 무신 정권기라 부름).

## 8 - 최씨 무신 정권

8. 다음 진의문이 올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엿드려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에 화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백성들은 살길이 아득해졌습니다. 신들은 폐하의 신령스러운 위엄을 빌려 단번에 그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에 삼가 10가지 사항을 아뢰옵니다.

- 『고려사』

- ①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② 정방과 삼별초가 설치되었다.
- ③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 ④ 묘청이 국호를 대위로 정하였다.

정답> ②

'엿드려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에 화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백성들은 살길이 아득해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들은 폐하의 신령스러운 위엄을 빌려 단번에 그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에 삼가 10가지 사항을 아뢰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최충현(1149~1219)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종(재위 1170~1197, 제19대)에게 올린 봉사 10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196, 고려 명종 26). 이후 최충현은 아들 최우(?~1249), 손자 최항(?~1257), 증손자 최의(?~1258)에 이르는 최씨 무신 정권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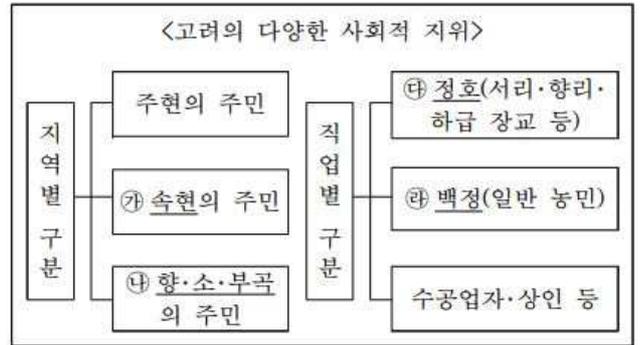
정방과 삼별초가 설치된 것은 최우 집권기의 일이다 [각 1225(고려 고종 12)/1232(고종 19)].

오답 해설>

- ① 이의방(?~1174)이 (정중부, 이고와 함께) 정변을 일으킨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
- ③ 척준경(?~1144)이 이자겸(?~1126)을 제거한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
- ④ 묘청(?~1135)이 국호를 대위로 정한 것은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 군으로 부름).

## 9 -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 ② ㉡와 ㉣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 ③ ㉢은 ㉠과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 ④ ㉣의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정답> ④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라는 제목 아래 '지역별 구분'과 '직업별 구분'이 나와 있다. 지역별 구분에서는 '주현의 주민', '속현의 주민', '향·소·부곡의 주민'이, 직업별 구분에서는 '정호(서리·향리·하급 장교 등)', '백정(일반 농민)', '수공업자·상인 등'이 나와 있다.

향·소·부곡의 주민은 심한 규제를 받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 승려로 출가하거나 국학 입학이 금지되었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오답 해설>

- ① 정호는 일종의 중간 계층으로 국가로부터 외역전, 군인전 등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 ② 속현과 향·소·부곡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백정은 정호와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옳은 설명이다. 신분적으로 자유민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고 중앙군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공민으로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다.

## 10 - 금양잡록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옳은 것은?

### <농서 소개>

- 1492년(성종 23)에 간행
- 곡물 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
-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 저술
- 당시 경기도 지역의 관행 농법을 정리

- ① 구황촬요 ② 금양잡록 ③ 농사직설 ④ 농상집요

정답> ②

'농서 소개'라는 제목 아래 '1492년(성종 23)에 간행', '곡물 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 저술', '당시 경기도 지역의 관행 농업을 정리'한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농서는 강희맹(1424~1483)이 간행한 『금양잡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구황촬요는 흥년[기근]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적은 구황서이다(1554, 조선 명종 9).

③ 농사직설은 중국 농사법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된 농서이다(1429, 조선 세종 11).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으며, 농민의 경험을 반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농서이기도 하다.

④ 농상집요는 이암(1297~1364)이 원으로부터 수입한 농서\*이다(1372년 간행, 고려 공민왕 21)

\*농상집요: 중국 최초의 관찬 농서로, 원에서 1273년에 집성하고 1286년에 간행·공포

<11번> 오답 해설>

②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기축옥사, 서인 영수인 정철이 주도). 정여립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동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참고로 정여립(1546~1589)은 처음에는 서인에 속하였다가 동인이 되었다.

③ 노론이 연잉군(후일 영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한 것은 경종 원년인 1721년의 일이다.

④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봉당 간 대립이 발생한 것이 바로 예송이다. 예송이 발생한 것은 조선 현종 대이다 [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11 - 경신환국과 기사환국 사이의 사실

11.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허적과 허견의 사가(私家)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선군 이남은 집 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물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 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에 감히 송의 철종을 끌어대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당연히 멀리 내쫓아야 할 것이다.

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②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노론이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④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봉당 간 대립이 발생하였다.

정답> ①

(가)에 '허적과 허견의 사가(私家)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선군 이남은 집 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물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 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허적과 허견', '복선군 이남'이라는 인물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숙종 6년인 1680년에 발생한 '경신환국(경신대출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680, 숙종 6). 당시 서인은 남인의 영수격인 허적(1610~1680)이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하여 남인을 축출하고 집권하였다.

(나)에는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에 감히 송의 철종을 끌어대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당연히 멀리 내쫓아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송시열'이라는 인물, '원자의 명호'라는 표현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숙종 15년인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사환국으로 말미암아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 12 - 조선 광해군 대의 사실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후금이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군에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왕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 ①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③ 국방력 강화를 위해 5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
-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을 허용하였다.

정답> ③

'후금이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군에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왕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후금', '강홍립', '조·명 연합군' 등의 표현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왕'은 광해군(재위 1608-1623, 제15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군에게 패한 전투는 1619년 3월 초에 있었던(사르후 전투, 상간하다 전투, 아부달리 전투, 부차 전투가 순차적으로 발생).

국방력 강화를 위해 5군영 체제를 완비한 것은 숙종대의 일이다(숙종 8년인 1682년에 5군영 중 마지막인 금위영 설치).

오답 해설>

- ①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광해군 2년인 1610년의 일이다(동의보감을 편찬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
- ④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을 허용한 것은 광해군 원년인 1609년의 일이다.

## 13 - 대한 제국 시기의 사실

13. (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가)(으)로 정하였다.  
- 『승정원일기』

- 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근대식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 ④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③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가)(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종이 재위 34년인 1897년 10월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정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1897.10.12).

근대식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것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8월의 일이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한 것 역시 1899년부터의 일이다(~1904).
- ④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도 1899년 9월의 일이다(한청 통상 조약).

## 14 - 제물포 조약 체결

14.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들을 따라 들어갔다. (중략) 민겸호가 황급히 대원군을 쳐다보고 호소하되, "대감, 날 좀 살려 주시오!" 하였다.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하였다. - 『매천야록』

(나) 청나라 제독군문 원세개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는 퇴각했으며 임금은 복관묘에 행차하셨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죽임을 당했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군을 끼고 도망쳤다. 임금이 환궁할 때에 원세개는 하도감에 주둔하고 있었다. - 『매천야록』

- 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 ② 이만손 등이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④

(가)에 '임금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들을 따라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민겸호가 황급히 대원군을 쳐다보고 호소하되, 대감, 날 좀 살려 주시오 하였다.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년 6월 25일의 일이다(~12월 17일).

(나)에는 '청나라 제독군문 원세개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는 퇴각했으며 임금은 복관묘에 행차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홍영식과 박영교는 죽임을 당했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군을 끼고 도망쳤다. 임금이 환궁할 때에 원세개는 하도감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에 발생한 갑신정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오군란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8).

## 15 - 민주화 운동

15. (가)~(라)의 민주화 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부·마 민주 항쟁
- (나) 3·1 민주 구국 선언
- (다) 6월 민주 항쟁
- (라) 5·18 민주화 운동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라) → (가) → (다)

정답> ③

(가)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1979년 10월 16일의 일이다(~10월 20일).

(나) (재야인사들이 서울의 명동 성당에 모여)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한 1976년 3월의 일이다.

(다)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1987년의 6월의 일이다.

(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80년 5월 18일의 일이다(~5월 27일).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라)-(다)'가 된다.

<14번> 오답 해설>

- ① (제1차 갑오개혁 추진을 위해 초정부적 입법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6월 25일의 일이다(~12월 17일).
- ② 이만손(1811~1891) 등이 영남만민소를 올린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2월의 일이다.
-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 조선 정부의 항의와 청의 중재로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침략 의사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철수하였다.

## 16 - 조소앙

16.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가)의 약력

-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 1930년 상하이에서 이동녕 등과 한국독립당 결성
-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 제창
- 194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최다 득표로 당선

① 김규식    ② 여운형    ③ 안재홍    ④ 조소앙

정답> ④

'(가)의 약력'이라는 제목 아래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1930년 상하이에서 이동녕 등과 한국 독립당 결성',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 제창', '194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 '1950년 제2대 국회 의원 최다 득표로 당선'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소앙(1887~195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본명은 용은, 호가 소앙).

오답 해설>

- ① 우사 김규식(1881~1950)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다.
- ② 몽양 여운형(1886~1947) 역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언론인이다.
- ③ 민세 안재홍(1891~1965) 역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사학자이다.

<17번> 오답 해설>

- 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탄압한 것은 1910년대의 일이다(1912.4~1920.3).
- ④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한 것은 1939년 10월의 일이다(공포는 같은 해 7월).

## 17 - 1920년대의 사실(신문 검열)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적 이치는 고등 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중략) 오늘날 우리 조선인도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도다.

- ①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을 검열하였다.
- 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다.
- ④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정답> ①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적 이치는 고등 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중략) 오늘날 우리 조선인도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학의 설립'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결성된 것은 1922년 11월이며, 기성회에 의해 창립 총회가 개최된 것은 이듬해인 1923년 3월의 일이다(1923.3.29).

일제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정책을 전환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의 발행, 개벽과 신생활과 같은 잡지의 발행을 허가하였으나(각 1920/1922)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였다.

오답 해설>

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둔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 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 18 - 한·중 연합 작전(대전자령 전투)

18.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월 30일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 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자동차를 앞세우고 본대가 대전자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략) 한국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해 적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중략)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군은 130여 명 이상이 살상되었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다.

- ① 한·중 연합 작전으로 전개되었다.
- ② 양세봉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③ 독립군 통합 부대가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 ④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정답> ①

'6월 30일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 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 자동차를 앞세우고 본대가 대전자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국 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해 적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중략)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군은 130여 명 이상이 살상되었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전투는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의 대전자령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3.7).

대전자령 전투는 1930년대 전반 조선 혁명군(양세봉 총사령)과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이 수많은 한·중 연합 작전 중의 하나이다.

오답 해설>

- ② 양세봉(1896~1934)이 이끄는 부대(조선 혁명군)이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대전자령 전투는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이 아니라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참여하였다.
- ③ [서일(1881~1921)을 총재로 하여 1920년 12월에 조직된] 독립군 통합 부대(대한 독립군단)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집결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경이다(같은 해 6월에 자유시 참변 발생).
- ④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시작된 전투는 청산리 대첩이다(1920.10.21.~26).

## 19 - 화폐 정리 사업

1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제2조 교환을 위해 제출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한다. 화폐 감정인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무늬, 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개당 금 2전 5리로 새로운 화폐와 교환한다. (중략)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 ① 한국 상업 자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③ 전환국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 ④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정답> ③

제1조로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로 '교환을 위해 제출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한다. 화폐 감정인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3조로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무늬, 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개당 금 2전 5리로 새로운 화폐와 교환한다. (중략)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재정 고문으로 온 일본의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905.7~1901.12).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전환국이 세워진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7).

오답 해설>

- ① 화폐 정리 사업은 한국 상업 자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20 -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20. 다음 연설을 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 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중략)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정답> ①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 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UN)에 가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노태우 정부 시기는 1988년 2월에서 1993년 2월까지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오답 해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10·4 남북 공동 선언).

- 이 상 -